

추계예술대학교

2021년도 제6회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구성단위	의원정수	재적의원	참석의원
교원	5	5	5
직원	2	2	2
학생	2	2	1
교조	1	1	1
동문·외부	2	2	1
회의개최 통보일		2021. 11. 12.	

1. 일 시 : 2021. 11. 24.(수) 11:00 - 11:50

2. 장 소 : 창조관 8층 소회의실

3. 부의안 :

가. 교비회계 2021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자문

나. 추계예술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4. 의원 출결사항

○ 참석의원(10인) : 안성아, 김영환, 김성경, 김현주, 조은아, 김연우,
나인수, 권오훈, 윤별, 서문석

○ 결석의원(2인) : 김동현, 강종표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 정현주 간사 의원출석 점명에 이어 재적의원 12위원 중 10위원 참석을 보고하다.

나. 개회

○ 안성아 의장 바쁘신 일정에 오프라인과 줌 회의로 많은 참석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후 2021년도 제6회 대학평의원회를 개회하다.

다. 부의안 제1호 교비회계 2021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안성아 의장 부의안에 대한 설명을 담당자에게 청하다

(기획팀장 정현주)

○ 정현주 제1차 추경 대비 주요 보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다.

○ 안성아 의장 질문과 의견을 구하다.

- 김현주 의원 법인전입금 20억 지원금에 대해 질문하고 법인전입금이 10월에 지급된다고 지난 8월 대학평의원회에서 설명을 했다고 언급하다.
- 정현주 총무팀 담당자가 적금 만기 날짜를 착각한 것 같고 12월 1차 8억, 내년 2월 2차로 1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권오훈 의원 적금 만기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의 이사장 선임 문제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다.
- 정현주 확인하겠다고 답변하다.
- 권오훈 의원 주요 보고 사항 중 법인전입금이 20억이 아니라 19억인 이유를 묻다.
- 정현주 법정부담금 1억이 이미 반영되었기에 19억을 추가로 지원하여 법인지원금이 총 20억이 된다고 설명하다.
- 김성경, 김현주, 권오훈 의원 지난 5월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가 법인에 요청하여 지원하기로 한 법인지원금은 20억이라 순수하게 20억을 지원해야지 법정부담금까지 포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다.
- 김현주 의원 유학생을 모집하거나 혹은 법인에서 지원한다는 소식과 수익사업 증대 등 학교에서 뭔가 하는 것은 같은데 정확히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다.
- 정현주 국제교류원은 유학생 모집을 위해 야근과 주말에도 근무 중이며, 수업지원, 생활지원 면에서 유학생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제학부, 대학원 교원 4~5명과 4명 직원 중심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유학생 모집과 수업의 질 제고 등 학사 관리를 위해 대응 중이라는 것을 알리다.
- 권오훈 의원 법인지원 이후에 약 20억원이 부족하고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에서 5년간 급여의 10%씩 총 40억의 기부(안)을 제시하고 재정적자 해결 및 대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총장은 재정 부족 금액에 대해 이사진 및 지인을 통해 발전기금을 마련하거나 사재출현 등 노력을 보이며 구성원들에게 기부금을 급여의 15%나 그 이상을 설득하는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올해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년에 한계대학 중 위험대학 2단계 개선요구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경영진에서는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냐고 묻다.
- 안성아 의장 국제교류원을 통해 중국유학생 유치가 2018년 6명에서 2021년 128명으로 꾸준하고 가파르게 증가하여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고 최근에는 베트남 유학생까지도 유치하여 다각도로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권오훈 의원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잘 알겠다고 언급하고 다만, 11월부터 4개월간 임금체불과 매년 발생하는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필요하고 총장께서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설득이나 호소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다.
- 김현주 의원 경영자로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다.
- 안성아 의장 구성원들과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을 위한 재정설명회를 이미

시행했음을 언급하다. 설명회 시행시 내용이 부실하다고 비난 하시는 분도 있음을 설명하다.

- 김성경, 서문석, 김현주 경영자가 구성원들을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재차 요청하다.
- 권오훈 의원 연구 용역비 지급 관련 비등록금회계 집행을 위한 통장 운영 등에 대해 질문하다.
- 정현주 비등록금회계 통장 운영에 대해 사무처 총무팀에 확인하겠다고 설명하다.
- 권오훈 의원 연구 용역비 지출이 규정상 문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 상황에서 재정적자 대책도 없이 구성원들의 반감을 사고 재정이 낭비될 조직개편 및 인사제도 연구 용역보다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재도전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을 한다면 그나마 4~50억의 재정지원이라고 받게 된다고 언급하다.
- 안성아 의장 우리 대학의 재정 구조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컨설팅을 통해 경영을 진단하고, 조직개편, 인사제도 분석으로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교과서가 필요하고 대학 본부의 노력임을 설명하다. 컨설팅 결과는 구성원에게 보고하고 실행 방안은 협의를 통해 찾을 것이다.
- 권오훈 의원 연구 용역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3월초부터 시작해야 했는데 하필이면 입시기간으로 바쁘거나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으로 발표되고 난 후 진행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학과개편 등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컨설팅이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당초 연구 용역비가 1억 2천에서 8천 5백만원으로 감액이 된 것을 2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묻다.
- 정현주 대학기본역량진단 재도전하는 컨설팅 비용과 추후 정부 본예산 통과로 미선정대학 중 추가 선정 50%시 후속 사업 신청 등 필요한 제반 비용 등을 위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다.
- 권오훈 의원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가 제안한 5년간 40억 기부를 수락하고 총장 포함 경영진은 발전기금 마련 노력 및 사재출현 등 상황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 필요하며, 예를 들면 매년 발생되는 20억대 적자 상황에 대해 교직원 10% 급여 기부액 8억과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중 한일장신대 총장처럼 무보수를 받게 되면 2억정도 재정 절감을 하고 나머지 부족 금액은 예산절감과 소통 및 설득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다.
- 안성아 의장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총장 기부금이 발생했으며, 외부 발전기금도 유입이 되었음을 설명하다.
- 권오훈 의원 이런 재정적자 상황에서 총장님은 급여 50%기부를 약속해 놓고 전부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정관을 통해 종신으로 변경(2021.10.1.)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위기 극복을 저해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라고 설명하다.
- 안성아 의장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개월간 급여의 50%를 기부했었고 총장 정년 변경은 총장님도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하다.

- 김현주, 김성경 민감한 시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하다.
- 권오훈 의원 당초 48억 재정적자 속에서 총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했는 지 설명이 필요하고 학교측에서 재정적자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 현 재정적자 상황이 발생하게 된 책임 중에 하나를 설명하자면 1974년 개교부터 2003년까지 약 30년간 40억을 적립하여 30억을 대출하여 총 70억 가량의 청사관 건물을 신축하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9년간 적립금액이 무려 180억으로 창조관을 신축했다고 설명하다.
- 정현주 적립금을 마련하여 후배를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임을 주장하다.
- 권오훈 의원 당시 본예산 대비 적립금액 차이가 너무 큰 것이 문제이고 대부분 평생교육원에서 전출금으로 적립금을 하였으며 9년간 총 180억의 적립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기보다 일정금액은 대출로 분담하고 잔여 예산으로 다른 항목에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적립금액만으로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2011.9. 부실대학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당시 교과부 4대 평가지표 중 2개 지표만 만족했어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만 선정되었을텐데 4대 평가지표에 하나인 교육비환원을 기준이 100%였는데 우리 대학은 99%대로 영점 몇프로 부족해서 교원이나 직원 중 1명 이라도 채용했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라면 어차피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적어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부실대학으로는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더불어 2011.9. 부실대학 당시 총장은 교수 비대위에게 대외협력홍보실 구성, 본부 교원 보직자 인사권 공유, 3년간 총 100억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제28대 총학생회하고는 홍보팀 구성, 우수 교원 확보, 학생 요구사항 적극 수용, 등록금 10%인하, 장학금 15% 확충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의 여파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을 미쳤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다.
- 김성경 의원 어려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경영자가 더 활발하게 소통 해 줄 것을 당부하다.
- 안성아 의장 부족한 재정상황으로 의원들께 심려를 드렸고 그러나 다행히, 수익사업의 정리 및 신중한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우리 대학의 재정 형편은 나아지고 있음에 기대를 해 주시기를 청하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을 제안하다.
- 전체 의원 동의, 제청하다.
- 안성아 의장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라. 부의안 제2호 추계예술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 안성아 의장 부의안에 대한 설명을 담당자에게 청하다

(교무팀장 정재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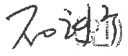
- 정재민 자세히 설명하다.
- 안성아 의장 질문과 의견을 구하다.
- 김현주 의원 동시대미술학부 학사구조 개편을 위해 미술대학 전체가 노력했음에도 이견으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미선정되면서 동력을 잃고 있다. 어렵게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학 본부 등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 안성아 의장 주신 의견 잘 접수하여 본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하다.
- 권오훈 의원 대학입학정보시스템 보고, 공시 등 행정 사항이 있음을 부연 설명하다.
- 정재민 본 문구는 적용 시기를 2023학년도로 명시하는 것으로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님을 부연 설명하다.
- 김성경 의원 학칙 자구수정 중 제61조, 학(부)장을 대학(부)장으로 변경함을 제안하다.
- 전체 의원 동의, 제청하다.
- 안성아 의장 주신 내용을 반영하고 원안 중 수정(안)을 반영하여 통과할 것을 제안하다.
- 전체 의원 동의, 제청하다.
- 안성아 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6. 폐회선언


- 안성아 의장 이후 기타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6회 대학평의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 2021년도 제6회 대학평의원회 회의서류 1부. 끝.

2021년 11월 24일


기록 : 간사 정 현 주 

의장 안 성 아 


의원 김 영 환 

의원 조 은 아 


의원 김 현 주 

의원 김 연 우 

의원 윤 별 

의원 나 인 수 

의원 권 오 훈 

의원 서 문 석 

~~의원 강 종 표 (인)~~

의원 김 성 경 